

# 기다림 배우며 바다 가꾸는 사람들

발로 딛는 제주잠녀의 삶-구좌읍 평대리 어촌계

등록 : 2008년 10월 13일 (월) 16:50:28  
최종수정 : 2008년 10월 13일 (월) 16:50:28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 ▲ 불턱

아름다운 숲길에 가린 짙고 깊은 푸르름 간직한 바다...상시 잠녀만 50~60명  
공동 양식장 대신 서동 '망둥이 바다'수확 기다려, 윤번제 천초 작업 등 열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더 유명하다.

제주 내륙에서 가장 먼저 봄을 타는 '비자림'의 유명세로 바다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쪽이 한 계절이 늦은 바다는 물의 생명력에 종종 묻히곤 한다.

하지만 그 안에도 바다를 지키고 바다발을 일구는 아낙네들의 손길은 부산하다.

파란잎 아래 파란 이끼가 자라는 비자림이 푸르다면, 종패를 뿌려놓고 내년 수확을 기다리는 바다 역시 푸르다.

## △바다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이곳에서 햇물에 작업을 하는 잠녀는 줄잡아 30~40명 남짓. 천초 작업을 할 때는 80까지 바다로 나선다.

잠녀 수를 물었다. 상군인 이상순 잠수회장은 “50대를 주축으로 50~60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숨과 성게 작업을 할 때면 50~60명이 물에 든다”는 설명도 보태진다.

한일 공동 해녀 연구 세미나에 참가, 제주 잠녀의 오늘을 얘기할 만큼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이 잠녀회장이다.

행원 출신인 이 잠수회장은 평대에 시집을 와서야 물질을 배웠다고 했다.

너른 마을 어장을 자랑하는 행원 출신이 물질도 배우지 못하고 시집왔다는 얘기가 쉽게 귀에 와닿지 않는다.

이내 “힘든데 누가 자식한테 하라고 하겠냐”는 말이 돌아온다.

22살에 시집와 30년 가까이 바다에 들었던 이 잠수회장은 “이 곳은 모래가 많아 바다가 좋지 않다”며 “그래도 올해는 좀 소라가 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소라 TAC 물량이 2만kg이니 물건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 비하면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5000kg 가까이 천초를 수확했다.

서동·중동·동동으로 나뉘어 작업을 하는 잠녀들이지만 천초만큼은 공동작업 형태로 진행한다. 동별로 수확량이 제각각인 탓에 지난해 동동에서 작업을 했다면 올해는 서동에서, 내년에는 중동에서 하는 식으로 전체 잠녀가 돌아가며 작업을 한다. 동동과 중동 경계인 ‘진진여’와 서동과 중동의 경계인 ‘물안장’은 천초가 좋다.

바다에 열심인 만큼 물 밭에도 열심이다. 일부 마늘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근과 감자 농사에 공을 들인다.

### △‘망둥이 바다’에 희망 걸고

평대에는 공동 양식장이 없다. 그렇다고 바다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

중동·서동·동동의 동회장 중 연합회장을 뽑아 전체 잠녀들의 물질 작업 가부와 날짜 등을 정한다.

동별로 나눠 종패 사업을 계속해왔지만 별로 건진 게 없다. 특히나 중동과 동동은 죽어버린 종패 껍데기를 치우는 일도 지칠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서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양식장을 만들어 종패를 뿌렸다.

그 곳이 바로 ‘망둥이’다. 곳바당인 만큼 관리도 여간 열심인게 아니다. 텃밭을 띄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순번을 정해 돌을 뒤집어주고 불가사리나 성게 같은 해적 생물도 잡아 준다.

해초 등 먹이가 많은 탓에 종종 150g 정도 나가는 성패도 얼핏 보인다고 했다. 1만2000마리의 종패 중 잃은 것도 많지만 잘 자라준 것들에 대한 기대도 많다.

발일 하랴 물질 하랴 정신 없는 와중에 묵묵히 어장 관리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잠수회장은 “아직 한번도 작업을 해보지 않았다”며 “좀더 키운 뒤 내년 정도 작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동 탈의장에는 아직도 불턱이 남아있다. 나름 준비를 잘한 탓에 잘 정비돼 있다.

비자림에 가려 제 빛을 살리지 못한 바다지만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 숨비 소리를 내뿔으며 오르락 내리락 심폐소생술을 하는 잠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사고로 고령의 잠수가 목숨을 잃는 등 평탄하지 않은 바다에, 조금은 이른 듯한 걱정까지 마음이 무겁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구좌면 종달리 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